

현대패션에 나타난 누디즘 스타일에 관한 연구

박 태 용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 학과 석·박사통합과정

A Study on the Nudism Style Expressed in Modern Fashion

Tae-Young Park

Master &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2006. 7. 17 투고)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stablish a theoretical concept of nudism from sociocultural context, to examine its formative characteristics, to analyze the cultural meaning of nudism style showing in the 2000's fashion world, and to analyze and examine its aesthetic qualities.

The way of a study was based on analysis and review on philosophy, aesthetics, sociology, popular culture and various documents at home and abroad and previous study and research materials about art and clothes for theoretical study. Also, we carried out a case study by analyzing photo data from fashion books, magazines and internet websites, considering the body and dress as visual objects.

The summary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Nudism of the sociocultural context was divided into change of understanding of the body and liberation of the body; naturalism; resistant culture; psychoanalysis context. 2.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nudism style in fashion are classified in Exposure, Transparency and Body Conscious. 3. The cultural meaning of nudism style expressed in the 2000's fashion are sexual opening, surfeit of mass media, pursuit of naturalism, lookism, and individualism. 4. Nudism style expressed in 2000's fashion is drawn as three aesthetic qualities: Eroticism, Primitivism and Futurism. First, Eroticism of nudism style fashion which seeks for sexual stimulus is classified in Sensualism, Provocation and Innocence. Second, Primitivism of nudism style fashion which tends towards naturalism objecting to mechanic and digital civilization and hoping for return to the origin is classified in Primitivism, Naturalism and Sensualism as per aesthetics qualities. Futurism which is the nudism style presenting futuristic expression through using a new material is analyzed as High Technology, Cyber Sexism and Functional Future

Key words: Nudism(누디즘), Nudism style(누디즘 스타일), Eroticism(에로티시즘), Primitivism(원시주의), Futurism(미래주의)

I. 서론

우리는 21세기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아 지난 어느 세기보다도 인간의 '육체'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인간의 몸을 단순한 생물학적 유기체로 보지 않고 심리적·이념적·역사적 의미까지도 내포한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¹⁾ 특히 21세기의 육체는 영혼의 저장소도 아니고 의복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육체도 아닌 개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육체요, 또한 자아 만족의 수단으로서의 육체가 된다. 이렇게 육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 때에 음지식물처럼 사회의 어두운 면에서부터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한 '누디즘(nudism)'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태양아래 점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사회의 한 줄기로서 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에 와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누디즘(nudism)은 '나체주의'라는 뜻으로 대체로 건강이나 편의를 이유로 해서 옷을 입지 않고 사는 관행을 말하며 20세기 초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일찍이 Flügel은 "의복의 실용성에 대한 중요성은 신체 활동에 부자유스럽지 않은 의복을 의미하며 이것만 부각시킬 경우 의복의 필요성은 점차 사라지고 오히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옷은 아무것도 입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어 의복의 미래에 있어서 누디즘을 최초로 주장하였다.²⁾ 20세기 중반 이후 패션계에서 누디즘 스타일이 등장하였고, 또 21세기에 이르러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패션의 누디즘 현상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노출 의상에 대해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연구되고 있는데, 대부분 인체 노출 의상에 대한 감성 및 인지적 평가 위주의 분석들³⁾이며, 최근에 와서 Freud의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패션의 노출과 은폐에 대한 연구⁴⁾와 바디컨셔스 룩에 나타난 미적 특성 고찰⁵⁾을 통해 미래패션으로 누드 패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출하고자 하는 인간의 사회·문화적 심리와 패션과의 관련성을 역사를 통해

살펴보고, 특별히 2000년대 패션에 나타난 누디즘 현상의 문화적 의미와 미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션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목적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누디즘의 개념을 파악하고 패션에 표현된 누디즘 스타일의 역사적 현상 고찰 및 누디즘 스타일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 후, 200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누디즘 스타일의 문화적 의미와 미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철학·미학·사회학·대중문화 분석 및 비평, 예술 그리고 복식에 관한 다양한 국내·외 문헌 및 선행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몸과 복식이 시각적 대상임을 감안하여 패션관련 서적 및 패션 매거진, 인터넷 웹 사이트 등에서 얻은 시각 자료를 통한 실증적 연구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범위로 현대 패션 현상의 구체적 사례 연구를 위해서는 2000년대 이후로 제한하여 분석하였으며, 미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시각 자료는 2000년대 이후 Prêt-à-Porter collection, Haute Couture 작품 등 해외 유명 collection이 수록된 패션지와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누디즘의 일반적 개념

사전적 의미에서 누디즘(nudism)은 '나체주의'라는 뜻으로 대체로 건강이나 편의를 이유로 해서 옷을 입지 않고 사는 관행을 말한다. 누디즘의 역사는 19세기 후반의 엄격한 도덕적 태도에 대한 반발로 20세기 독일에서 시작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뒤 전 유럽으로 번져나갔고, 1930년대에는 북아메리카에서 자리 잡았으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몇몇 따로 떨어져 있는 캠프나 해변에서만 행해졌다.⁶⁾ 누디즘에 대한 초기의 이름은 각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독일은 *Freikörperkultur*(혹은 *Nacktkultur*)로 프랑스는 *libre-culture*, 영국에서는 *Gymnosophy*라 불리어 졌으며, 비록 많은 나라들에서 누디즘의 지지자 층이 피고용인이고 가난한 노동자계층이었

어도, 대체로 누디즘은 교육된 사람들-의사, 과학자, 법률가, 성직자, 그리고 특별히 프랑스에서는 상류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조직되고 지지된 운동이었다.⁷⁾

이렇게 시작된 누디즘은, 오늘날 몇몇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누디스트들이 개인적 기본전환, 자유 혹은 어엿한 건강한 습관으로 설명하고 싶어 한다. 이런 누디스트들에게 있어 자유란 단순한 옷으로부터의 자유인가? Ruth Barcan은 이 자유를 복합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옷을 벗을 때 우리의 걱정도 함께 벗어버릴 수 있으며, 옷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주위의 공간과 모든 것 등 훨씬 더 많은 환경을 즐길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물리적인 느낌이 아니라 일종의 정신적 휴식(relaxation)이라고 하였다.⁸⁾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누디즘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그리고 심리적 이론을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누디즘의 사회·문화적 배경

1)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본 몸

(1) 몸에 대한 인식 변화

서구철학사에서 정신우위의 육체와 정신의 이분법적 논리는 플라톤(Platon)에서부터 데카르트(Des-cartes)를 거쳐 헤겔(Hegel)에 이르기까지 합리주의적 인식론의 토대를 형성했을 만큼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⁹⁾ 이것은 서양의 형이상학적 관념론의 바탕으로서 17세기 초 데카르트의 정신/육체 이원론에 의해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이성을 강조하는 데카르트적 태도에 관한 거부는 모던적 가치관의 특징이 되었는데, 1781년 칸트(Immanuel Kant)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육체적 존재와 정신적 존재를 본질적으로 합하거나 적어도 상관적 방법으로 고찰하는 길을 준비하였으며, 19세기 이성보다는 감성과 정서를 중요시 여기는 반고전적인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는 인간은 결코 육체로부터 분리된 정신이 아니며, 그에게 있어서 세계에 관한 인식은 정신이 아니라 육체를

통하여 얻어진다고 하였다. 이어서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는 이성중심적 인식론에 비판을 가하면서 육체의 디오니소스적 가치를 강조하기에 이른다.

19세기의 몸에 대한 개념의 변화는 20세기에도 이어지게 되는데, 몸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킨 대표적인 철학자로 메를로 뽁띠(Merleau-Ponty)는 「지각의 현상학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을 통해 사람들이 다른 대상과 상호작용 할 때 육체가 기초적인 경험 매개체로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며, 이에 육체는 인간의 경험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틀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페더스톤(Featherstone)은 소비문화¹⁰⁾속에서 인간의 육체를 설명하였는데, 소비문화 시대에서 육체는 소비의 대상이 되고, 젊고 아름다운 육체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이 된다고 하여 육체의 지위를 승격하였다.

(2) 관리 가능한 몸

중세시대는 대체로 몸을 정신과 비교해서 부차적인 것이나 불경한 것으로 보는 정신주의가 지배적이어서 육체관리는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한 자기수련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근대에 들어와서는 지배 권력이 이성적 합리주의의 새로운 이념을 대중들에게 주입하는 과정에서 육체는 '이성실현'의 도구로써 하나의 통제 대상이 되었으며, '감시와 처벌'¹¹⁾이라는 근대의 새로운 권력 메커니즘의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후기자본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육체를 가꾸고 돌봄의 대상으로 삼아 육체의 조형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몸에 대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사회가 지닌 육체에 대한 지위 향상을 함축하는 것이다¹²⁾라고 하였다. 또한 루도프스키(Bernard Rudofsky)는 인간은 자신의 몸을 싫어하면서 동시에 매혹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그 결과 흥미롭고 매력적인 것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옷은 육체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며 재포장한다고 언급하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의복은 몸의 실제 구조나 형

태를 무시해왔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불완전한 존재이어서 항상 어떤 제재나 변형을 통해 완전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오래된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다¹³⁾. 여기서 우리의 몸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 없지만, 현대에서 우리의 몸은 의복 혹은 어떤 제재를 통한 구속이나 변형이 아니라 트레이닝, 다이어트, 성형 등을 통해서 몸 자체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자연적인 육체미에 대한 숭상에 의해 누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현대사회에서는 육체의 자연미를 나타내기 위해 육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노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된 몸은 그 가능성을 증가시켜주는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다.

(3) 육체의 해방

신체의 노출은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했지만,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가슴의 노출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16세기와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나체에 대한 지위가 상승하여 일반인 뿐 아니라 귀족계급에서도 스스럼없이 나체상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후 한 세기(19세기)동안 인류는 의복이라는 사회적 제도 및 문화로부터 속박 당하게 되고 나체는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스포츠는 대중에게 한층 가까워졌으며, 의복은 가벼워졌고 노출은 더 이상 스캔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여성은 두 가지 이유로 육체 해방운동의 선봉에 서게 되는데, 첫째, 거추장스러운 의복으로 말미암아 여성은 남성보다 더 통제된 삶을 살아왔으며, 둘째 전반적인 육체해방운동은 '지배받는 성(性)으로서의 여성'을 해방하는 운동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Colette, Coco Chanel을 비롯한 많은 디자이너들은 삶의 주체인 동시에 자유로운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신여성관을 주장했다. 1960년대가 되면서 수치심이라는 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육체는 타인의 시선 앞에 뒤편이 서게 된다.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은 점점 더 개인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되어가며, 자신과 동질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육체는 바로

자아를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가 없다는 사상이 팽배하게 된다. 나체에 관해 역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우리 사회에서 육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노출이라는 현상의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는 '형이상학적 원리'는 '육체가 완벽하게 개인의 소유물로 정착했다'라는 것이다¹⁴⁾. 즉 내 몸은 내 것이고 즉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육체의 해방과 노출패션의 보편화에서 개인주의의 정착을 볼 수 있다.

2) 자연주의로 본 누디즘

Skrine과 Furst¹⁵⁾에 따르면, 원래 자연주의란 유물주의(唯物主義, Materialism), 쾌락주의(快樂主義, Epicureanism), 혹은 세속주의(世俗主義, Secularism)를 뜻하는 것으로 고대 철학에서 사용되던 말로서 이러한 어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자연주의는 원시주의(原始主義, Primitivism)에 가깝게 해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주의라 명명한 이유는 누디즘(Nudism)의 또 다른 이름이 자연주의(Naturism)이기 때문이다. 그 어원이 Nature, 즉 자연을 뜻하고 있으며 옷을 벗고 살고자 하는 누디스트(Nudist)의 또 다른 이름 역시 자연을 뜻하는 Natur-를 어근으로 사용하는 자연주의자(Naturist)이기 때문이다.

원시주의에 관한 정의로 웹스터 사전에는 '자연에로의 회귀를 함축하는 원시적 삶의 우월성을 신봉하는 것'으로 수록되었으며, '물질적으로 덜 발달되고 문명의 초기단계에 있는 사회의 덕목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기술되기도 한다. 문화인류학이나 Freud의 정신분석학에서 프리미티비즘을 찾아볼 수 있고 20세기 문학, 회화, 음악에서 그 영향이 적지 않다. 자연주의로 살펴본 누디즘은 예의와 규칙 등으로 문명화된 사회, 기계와 컴퓨터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 산업화와 물질문명으로 인한 공해, 옷 및 사회적 제도에 의해 얽매인 신체 등으로부터 탈피하여 순수자연에 대한 향수, 틀에 박힌 제도에 대한 일탈 및 새로운 이상향에 대한

도전 등으로 함축할 수 있다.

3) 저항문화로 본 누디즘

(1) 히피문화와 누디즘

히피는 거침없는 자아표현과 기성세대의 금지로부터의 자유를 구별되는 스타일, 의복, 음악, 태도를 가짐으로써 참자아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가정, 학교, 직장, 사회로부터 물질적 가치의 강조에 대한 반발로서 동방의 신비주의에 매력을 느끼고 구별된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었다. Jane & Michael Stern에 의하면 히피들은 인체의 완전함을 재발견하면서 벗기 시작하였는데 벗은 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며, 나체로 경작하고, 수영하며, 정원에 누어있기도 하였고, 여성들에겐 가슴을 노출하는 것이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¹⁶⁾ 나체는 저항 문화의 새로운 성적 태도로서 부분적으로는 고전적 나체 철학이 단순히 부활된 것이며 신체적 즐거움의 저항 문화적 사랑을 유지했고, 이러한 누드는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에 대한 극단적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기회를 주었으며 프리섹스(Free-Sex)의 예고가 되기도 했다.

60년대의 저항적 하위문화로서 중산층 계층의 히피와는 달리 70년대에는 핑크로 표현되어지는데, 이들은 노동자 계층의 자녀들로 경제 불황과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 권위주의에 대한 조롱, 무정부주의, 가학피학성의 변태성욕 등이 이념이 되고, 노골적인 음란과 외설적인 자학 등 추(醜)의 미(美)를 수용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표현수단은 성적인 부위의 과시와 신체의 노출 및 공격적인 패션을 취하였다.

(2) 페미니즘과 누디즘

메기 험(Maggie Humm)은 페미니즘을 '여성평등권 원칙과 동시에 단순한 사회적 평등 차원을 넘어서 여성을 위한 세상을 창조할 목적으로 사회 변혁을 일으키려는 이데올로기가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¹⁷⁾라고 정의하고 있다. Maggie Humm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저항문화의 산물인 페미니즘은 기존의 질서와 체제를 의문시하고 저항하며, 서구 문화를 주도해온 남성 중심의 이성주의적

답론을 해체하려 한다는 점에서 '저항적 포스트모더니즘'의 기획에 부합된다¹⁸⁾고 할 수 있다. 프랑스혁명으로 시작된 근대사회의 여성해방운동은 미국에서는 여권신장운동으로 진행되었고, 1930년대와 1950년대 경제적인 대공황으로 여성들의 직업상실과 가정복귀가 여권운동의 후퇴를 가져왔다면, 새로운 여성운동은 1960년대 미국을 뒤흔들었던 저항운동에서 시작되었다. 1968년 미국의 여성해방단체들의 항의시위는 여성의 억압으로 인식한 브래지어를 불태우는 투쟁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페미니스트들은 '브라 화형(Bra-burning)'을 통해 여성의 인체의 권리와 자유를 추구하려 하였으며, 이 '브라 화형'은 여성 가슴의 외부적 노출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한 면이 있다. 현대에 와서 교육받은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새로운 여성 의식이 과거의 은근하고 상징적이던 에로티시즘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 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60년대의 미니스커트를 여성해방의 의미와 동일시하였다. 여성육체의 노출을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해방으로 보는 페미니즘적 관점은 거추장스럽게 속박하는 옷만큼이나 전통사회 속의 여성은 지배받고 통제된 삶을 살아왔는데 여성육체의 노출은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성적 해방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육체로부터 코르셋의 제거와 브래지어로 구속되었던 유방에 자유를 선사했다는 의미에서 페미니즘이 육체의 해방과 누디즘 현상에 일조했고 본다.

4) 정신분석학으로 본 누디즘

(1) 에로티시즘(Eroticism)

에로티시즘이란 그리스어로 에로스(eros)에 그 어원을 두고 있으며, 근대의 에로티시즘에 관한 사전적 해석은 '성적인 만족을 위한 양식으로서 호색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육체적인 사랑을 묘사하고 그것을 고양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Freud는 인간의 본능 중에서 성적 본능이 가장 강하다고 하였는데, 기본적인 본능은 전환된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본능이 의복 착용동기와 연관된다는 연구를 한 사람이 Flügel이다. Steele에 따르면 Flügel은 인간에게 있어 옷은 가리는 동시에 노출시키는 목적

을 갖는다고 했으며, 내보이고 싶은 욕구와 정숙성 사이에서의 무의식적인 갈등은 의복으로 수치스런 몸을 가려 정숙성을 충족시키려 하나 은폐된 신체는 또한 관심을 끌기 때문에 '절충'으로써 작용한다고 하였다.¹⁹⁾ 특히 중세 이후로부터 노출은 인간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여성미의 표현이나 인체의 장식적 요소로서 그 위치를 바꾸게 되었고 에로티시즘을 대변하게 되었다. 따라서 에로티시즘은 생물로서의 인간의 본능적 욕망이나 생식행위와는 무관하며 본질적으로 심리적인 기초에서 발하는 것이므로 패션에서도 그 원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패션에서의 노출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론적 토대가 되어왔다.

(2) 나르시시즘(Narcissism)

나르시시즘(Narcissism, 자기애)이라는 용어는 희랍 신화에 등장하는 나르키소스라는 인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학문적 용어로 쓰이게 된 것은 19세기 네케(Paul Näcke)가 자신의 몸을 마치 성적(性的)의 대상을 대하듯 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지칭해서 심리학과 정신병리학의 용어로 사용한 것이 처음이며, 이때의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는 성도착증의 하나의 형태를 나타내는 말이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여성의 나르시시즘은 필요한 방어로 보기도 하는데, 여성은 자신의 외모에 과도한 자만심을 가지고 자신의 이미지가 남의 눈을 통해 보이는 것을 즐기므로써, 자신의 해부학적 운명인 수치심과 열등감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⁰⁾ 여성의 누디즘 스타일 패션에 대한 프로이트적 분석은 여성의 나르시시즘과 관련된다. 즉, 남근이 없는 여성은 자신의 육체에 대한 만족과 육체를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욕망으로 신체노출에 민감하고 에로틱한 옷에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육체를 노출시키는 누디즘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신체를 사랑하는 방법의 한 가지 표현으로써 자신의 몸이 아름다움이라고 느끼는 자기애(自己愛)와 남들에게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충족 욕구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노출과 관음증(Voyeurism)

Freud는 성욕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는 '보고자 하는 욕구'로서 상대의 성적 특징이 있는 독특한 기관을 보려고 하는 욕망은 남녀 모두에게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인 형태로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는 관음(觀淫, voyeurism), 즉 타인의 육체나 타인의 성(性) 관계를 훑쳐보고자 하는 심리적 경향은 어린이나 신경증 환자에게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성인에게도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양상이라고 하였다.²¹⁾ 보려는 본능은 성적 충동의 근원적 요소 중 하나로 남성은 여성의 노출증을 바라보면서 즐기며, 가부장적 사회는 남성의 이러한 관음 증세에 대해 대체로 관대하다.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여성은 남성의 관찰과 통제의 대상이 되어오며 따라 여성은 수동적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습성을 갖게 되고 노출적인 몸치장을 하게 되었다.

한편, 다른 관점에서 여성의 육체 노출과 남성의 관음적 시각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다. 가부장적 사회 속의 남성의 관음증적 응시와 여성의 해방적 육체노출에 대한 하나의 이론을 들자면, Kauffman의 토폴리스 쪽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노출과 관음이 가능한 사회적 질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여성 해방적 의미의 여체 노출과 남성 중심적 관음적 시선 사이에는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노출과 엿보기라는 게임에서는 실제로 노출하면서 노출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서 아무것도 보지 않는 척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즉 여성은 남성의 보이지 않는 척하는 태도를 보지 않는 태도로 믿는 척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노출과 관음의 세계는 남녀 모두에 있어서 상황을 이해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성찰할 수 있는 자율적 능력이 있음을 말하며, 이와같은 상황은 해변에서 뿐 아니라 공원이나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여성의 신체 노출과 남성의 관음적 시각 사이에 존재하는 몇 가지 견해는 첫째는 여성의 나르시시즘적 자기애를 표현하기 위한 신체노출이라는 점과 둘째는 남성에게 성적 어필을 위한 여

성의 신체 노출, 마지막으로 여성 해방적 의미의 신체 노출을 들 수 있으며, 여성의 신체 노출이 어떠한 견해에서 표출되었건 남성의 관음적 본능은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패션에 나타난 누디즘 스타일

1. 누디즘 스타일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의복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어느 시대이건 몸의 일부분이 노출되지 않았던 때가 없다. 각 시대마다 인간은 어깨나 가슴, 힙, 허리, 다리 등을 노출시킴으로써 인간이 갖고 있는 표현욕구나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욕구를 충족시켜 왔다.

이집트 여자 복식에서는 유방에서 끈이 달린 쉬스 스커트(sheath skirt)와 거의 누드 같이 투명한 칼라시리스(kalasisiris)를 입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중세 이후로부터 노출은 인간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여성미의 표현이나 인체의 장식적 요소로서 그 위치를 바꾸게 되었고 에로티시즘을 대변하게 되었다. 에드아르트 폭스(Eduard Fuchs)에 따르면 개인적인 육체의 아름다움을 어느 때이든 과시하는 것이 르네상스 시대의 복장의 중요한 특징이었으며 이러한 목적미가 의복을 통해서 강화되었는데, 당시 여자의 복식은 아주 대담한 데콜타주(decolletage)의 유행, 즉 유방의 노출이 성행하였다. 이렇게 여성의 인체를 드러내는 패션은 엠파이어 스타일 시대에 와서 극히 얇은 의복을 통하여 다리, 가슴, 팔 등을 노출하게 된다. 이 시대의 여성들은 몸에 더욱 밀착된 효과를 얻기 위해 얇은 머슬린을 적셔 입어 맨살이 완전히 비치 마치 누드를 보는 듯 하게 입었는데 이로써 머슬린 병(muslin disease)까지 생기게 되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누디티(nudity)를 향해 유행이 움직이긴 했지만 부분적으로 신체가 노출된 룩(bare look)은 가리고 감추는 패션을 뒤따라야만 했다. 그러나 1920년대가 되면서 low-waist와 더불어 다리에 중점을 두는 무릎길이의 짧은 스커트가 나타나 복식사상 처음으로 가슴, 허리, 힙에서 벗어나

종아리가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플래퍼(flapper)²²⁾라는 젊은 여성들은 기존의 가치관과 전통을 거부했는데, 스커트의 길이가 역사상 가장 짧아 여성의 무릎이 보이는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은 플래퍼들의 의식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였다. 이 당시의 스커트는 짧아지고 헤어스타일도 남성처럼 짧아지고 소매 없는 옷이 등장하고 등이 깊게 파이고, 얇고 비치는 소재와 레이스 사용의 증가 등은 모두 육체의 노출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사치를 감추어왔던 이전시대의 여성 패션에 대한 반란이었다. 엘리 로버너(Ellie Laubner)는 「Fashion of the Roaring 20's」에서 “젊은 플래퍼들은 비치는 옷을 입어 ‘nude look’을 좋아했다.”²³⁾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60년대의 ‘젊은 세대’가 이른 ‘영 컬처(young culture)’는 극단적 노출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출에 있어서 다리 노출은 60년대 인체미의 기준이 되었던 날씬함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이었으며, 이는 미니스커트의 유행으로 이어지게 되었다.²⁴⁾ 이러한 1960년대의 노출은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진다. 즉 하나는 얼마만큼 과도하게 노출되는가를 에로틱한 표현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젊음과 자유의 상징,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적 해방에서의 노출을 보는 견해로, 대체로 두 번째 의견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60년대는 패션에 있어서 혁명의 시기였으며, 육체에 있어서는 해방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누디즘은 점점 확대되어 공인, 비공인의 누디스트 캠프가 각지에 세워지게 되었고, 이 누디즘은 스트리트 패션에도 영향을 미쳐, 가슴과 등의 노출도는 점점 커지고, 때로는 유방의 일부를 보이는 모드가 나타났다. 특히 Rudi Gernreich의 토폴리스 수영복은 가장 대담하게 육체를 드러낸 모드로 경찰은 처음 이것을 제재했지만 곧 눈을 감게 되었다. Gernreich의 이러한 디자인은 1965년 “‘NO’ Collection”이라는 이름으로 여성 언더웨어 시리즈를 탄생시켰는데 ‘No-Bra’ bra, ‘No-Back’ bra, ‘All-In-None’으로 나타났으며, 그는 여성이 의복의 어떠한 저항으로부터도 자유롭고 편안하게 보이도록 만들

기 위해서였다고 말하였다.²⁵⁾ 또한 1968년에 발표된 Yves Saint Laurent의 See-through blouse 및 dress는 60년대 후반의 진보적인 미학과 혁명적인 성 정책의 조화를 이룬 매우 시장성 있는 스타일로 보헤미안 문화의 관능적 매력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는 종종 데카탕스(decadence)의 시대로 인용되어지는데,²⁶⁾ 사회전반에 걸쳐 디스코의 열풍이 있었다. New York의 나이트클럽 Studio 54를 중심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밤거리에 모여들었으며, 이들의 패션은 정숙한 것과는 반대로 퇴폐와 타락의 문화가 만연하게 되었으며 신체의 과감한 노출도 일삼았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에 들어 더욱 심화되어지는데, 80년대는 스포츠의 일상화와 자신의 몸매를 신경 쓰고 관리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스포츠웨어 산업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으며, 앞선 어떤 시대보다 육체적 건강과 훌륭한 몸매가 자산이라는 확신이 강한 시대였다.

1990년대에는 60년대로의 복고풍과 함께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패션에서도 부각되면서 인체와 자연이 하나된 듯한 다양한 디자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때 사용되어진 스타일이 인체를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누디즘 스타일이었다. 신소재의 개발과 발전은 90년대의 누디즘 스타일 패션에 상당부분 기여하게 되는데, 소재가 얇아질 대로 얇아져서 극에 달하면서 bodyline 뿐 아니라 피부가 그대로 옷감 위로 비춰지게 되었다. 한편 90년대의 최소지향주의(minimalism)의 성행은 Chanel이 아주 작은 천 조각들이 피부 위에 붙여져 있는 듯한 느낌의 micro bikini를 제작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누디즘 패션은 투명하고 몸에 밀착되는 신소재들(spandex, lycra, 신축성 있는 mesh 혹은 net 등)의 발달과 함께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

<표 1>에서 누디즘 스타일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다.

2. 누디즘 스타일 패션의 조형적 표현

1) 노출(Exposure)

누디즘 스타일 패션에 있어서 노출(Exposure)은 가장 근접한 형태의 누디즘 패션을 지향하며, 피부

<표 1> 누디즘 스타일의 역사

내용 년대	누디즘 스타일 경향	대표적 디자이너
고대 이집트	-쉬스 스커트 -칼라시리스	
중세	-신본 중심, 금욕주의 -신체에 꼭 맞는 블리오, 꼬파르디	
르네상스	-유방 강조, 데콜타쥬 -타인 앞에서의 신체노출이 어느 정도 허용	
엠펙과 이어 시대	-투명한 슈미즈 드레스 -신체라인을 그대로 노출	
1920 년대	-플래퍼들의 팔, 등, 다리가 노출된 스타일 착용 -진정한 누디즘에 접근 -See-through look	
1950 년대	-비키니의 등장	
1960 년대	-젊은세대 중심의 young-culture -topless swimwear 등장 -No Bra bra -Nudity look 성행 -히피의 누디즘 패션	-Rudi Gerneric -Yves Saint Laurent -Bill Blass -Courrèges
1970 년대	-Punk 록 스타일의 노출	-Yves Saint Laurent
1980 년대	-신체 노출의상의 증가	-Issey Miyake
1990 년대	-자연주의와 60년대를 향한 복고무드의 영향으로 신체를 과감히 드러냄 -성적 퇴폐주의 -투명하고 몸에 밀착되는 소재들(spandex, lycra, 신축성 있는 mesh 혹은 net 등)의 발달과 함께 더욱 성행	-Vivienne Westwood -Jean Paul Gaultier -Versace -Chanel -John Galiano -Paco Rabanne

와 신체의 각 부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놓은 형태를 말한다. bare look, nude look 등으로도 표현되어 왔는데, 여기서는 좀 더 극단적인 형태로 신체의 최소한의 부위만 가림으로써 피부의 대부분을 노출하고 있는 표현방법이다. 즉, 형태적 미니멀리즘을 통한 누디즘 패션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노출을 통한 누디즘 패션에서 주로 노출되어지는 부위는 사회적 상황에서 노출이 금기시 되어왔던

가슴, 허리 및 배, 등, 다리 및 엉덩이의 노출 등 여성의 성적 상징을 나타내는 부위(erogenous zone)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부분 혹은 전체를 드러내어 놓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대 크리트(Crete, 3500 B.C.~100 B.C.)의 low-necked bodice, 르네상스의 décolletage, 1960년대의 topless 수영복, 그리고 원시주의 패션경향의 nude look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2) 투시(Transparency)

투시의 기법은 '인체 부위를 직접적인 노출이 아닌 투시를 통해 연상 심리를 활용한 간접적이고 상징적인 방법으로 누디즘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누디즘 스타일 패션에 있어서 투시(Transparency)의 효과는 피부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노출(Exposure) 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얇은 소재를 통해서 피부나 신체의 각 부분이 비춰지거나 망사나 그물 소재 등을 통해서 살짝살짝 보임으로써 누디즘 패션에 더욱더 에로틱한 분위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되어지는 표현방법이다. 이러한 투시의 효과는 현대적인 미 추구 이상의 특별한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면서 고대로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패션에서 아주 투명한 투명록(crystal-clear Transparency)은 합성화학에서 새로운 기술의 발달 덕분에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그물(net)이나 망사(mesh) 소재는 부분적으로 비춰 보이는 투명록(transparent looks)을 창조할 때 종종 사용되어 온 은한 분위기를 발산해내기도 하며 에로틱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투명하게 비치는 아름다움은 '보여지기를 원하는 현대인의 심리' 위에 짚고 건강미 추구의 개념이 함께 작용되었으며, 누디즘이라는 패션 테마가 실현가능한 패션 요소로 정착되기 위해 가장 적절한 표현방법이 되었다. <표 2>에서 보면 고대 이집트의 kalasiris, 엠파이어 시대의 chemise, 1960년대 see-through blouse와 dress 및 net을 이용한 transparent look의 누디즘 스타일이 투시의 조형적 표현에 속한다.

3) 밀착(Body Conscious)

밀착(Body Conscious)이란 '옷을 몸에 타이트하게 입어 몸의 곡선미를 뚜렷하게 나타냄으로써 섹시 무드를 연출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인체에 밀착된 여성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벗은 몸(누드)을 연상하게 하여 에로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바디 컨셔스 스타일은 인체를 감싸므로써 신체의 선을 뚜렷이 나타내어 신체를 최대한으로 노출시키는 것이며, 스트레치 소재에 의한 바디 컨셔스 패션의 조형적 특징은 누드 효과로서의 절정을 이루며, 이것은 새로운 비전과 감각으로 투사되어 보이는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결국 무한한 미래적 이미지

<표 2> 누디즘 스타일 패션의 조형적 표현

시대 조형	고대	근대 이전	현대
노 출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low-necked bodice	low-necked dress	左: topless-swimwear 右: nude look
투 시	 <그림 5>	 <그림 6>	  <그림 7> <그림 8>
	kalasiris	chemise	左: see-through look 右: transparent look
밀 착	 <그림 9>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sheath-skirt	cotehardie	左: bodystocking 右: bodysuit

를 내포하고 있다.²⁷⁾ 이러한 신체 밀착의 형태인 바디 컨셔스는 여러 가지 용어²⁸⁾로 사용되면서 발전되어 왔는데, 모두 신체에 완전히 밀착되어 마치 제2의 피부(second skin)와 같이 보이는 형태를 말하며, 신체 밀착성은 디테일과 표현적 테크닉을 배제한 최소화된 형태, 즉 '인체 그 자체로 환원된 복식 형태'²⁹⁾이다. 다시 말해, 피부에 밀착됨으로써 인체의 곡선(bodyline)을 그대로 보여주어 여성성을 강조하는 에로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투시 효과에 이어 누디즘 스타일 패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면 고대 이집트의 sheath skirt, 중세 후기의 surcot-ouvert 안에 입은 coteharide,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bodystocking 및 body suit의 형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IV. 2000년대 이후 패션에 표현된 누디즘 스타일

1. 2000년대 누디즘 스타일 패션의 문화적 의미

현대사회에서 누드는 그 자체로 열띤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는데, 육체는 사회적·문화적 명령에 따라 장식되거나 은폐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육체의 모습이나 각도가 성적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인 양, 종종 누드를 토론하는 데는 호색 또는 외설스러움을 의미하는 '음란'이라는 말이 적용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누드는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세인들의 입에서도 '누드의 미학'이라 불리며 자주, 그리고 더 강도 높게 이야기 되어지고 있다.

2000년대 패션과 문화에 있어서 누디즘 현상의 의미를 요약하면 첫째, 성적인 개방과 매체의 범람으로 성에 대한 현대인의 사고방식이 관대해진 이유이고, 둘째는 물질만능주의에 억눌린 인간성 회복을 위한 자연성의 추구로 인체의 가장 자연스럽고 원시적인 상태인 나체상태로의 동경을 들 수 있겠으며, 셋째로는 웰빙과 건강지상주의 및 외모 지상주의의 이념으로 잘 가꾸어진 육체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나르시시즘)과 타인에게의 과시하고자 하

는 성향이 어우러져 더욱 누디즘 패션을 가속화한다고 하겠으며, 넷째로는 연예인에 대한 동경과 자신과의 동일시 현상으로 패션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명인사들의 노출이 심한 패션을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대중에까지 누디즘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20세기 중반부터 대두되어진 개인주의가 21세기에는 거의 정착되어 자신의 육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주권도 오직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2. 2000년대 누디즘 스타일 패션의 미적 특성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누디즘 스타일을 그 미적 특성별로 에로티시즘(Eroticism), 원시주의(Primitivism), 미래주의(Futurism)로 분류하고, 각각의 범주 안에서 크게 3가지 양식으로 구분하여 자세한 미적 고찰을 분석 해 보기로 한다.

1) 에로티시즘(Eroticism)

현대패션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만큼 인간 내면세계에서 성(性)에 대한 감각은 본질적이며 원초적인 욕망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누디즘 스타일이 성적 매력을 부각시키면서 에로틱한 이미지를 풍기지만 여기서는 인체의 성(性) 상징이 되는 부분을 강조하여 에로티시즘을 자극하는 스타일을 말한다. 에로티시즘은 한 시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 표현 범위와 표현 방법을 달리해 왔는데, 여성 신체의 피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누드 효과는 가장 기본적인 면서도 최상의 에로틱한 이미지로 문명의 시작 이래 지금까지 모든 예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거의 벗은 느낌이 들 정도의 누디즘 스타일은 분명한 성적 신호(erotic signals)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중반기 이후 더 섬세해진 소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현대패션에서 에로틱한 관능미는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³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누디즘 스타일 패션에 나타난 첫번째 미적 특성인 에로티시즘을 관능성

(Sensualism), 도발성(Provocation), 순수성(Innocence)의 3가지 양식으로 구분하여 미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1) 관능성(Sensualism)

'관능성'은 성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특성으로, 누디즘 스타일 패션의 에로티시즘에서 '관능성'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하여 에로틱한 감흥을 이끌어내는 스타일을 의미한다. 즉 에로틱한 표현을 하고자 하는 의복에서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성적 연상을 유발시키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잠재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섹스 심볼화 되어 있는 인체 부위의 직접적인 노출이 아닌 투시를 통해 표현하는 방법은 간접적이고도 상징적이며 은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복에서의 관능적인 효과는 소재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는데, 특히 투시(Transparency)와 밀착(Body Conscious)에 의한 신체 노출의 효과는 단순한 페미니즘(feminism) 미의 차원을 넘어 에로틱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관능적 특성을 지닌 에로티시즘 양식의 누디즘 스타일은 레이스, 그물, 망사 등을 통해 속이 비추어지는 투시(Transparency)의 효과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몸에 밀착하는 Body Conscious 스타일도 나타나 선을 통한 관능미를 뽐내면서 누디즘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특히 black이 주류를 이루고 nudi color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black은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의 이미지 중에서도 특히 에로티시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³¹⁾ <그림 13>은 Gaultier Paris의 03~04 f/w collection에서 보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감싼 검정색 레이스의 점프 슈트로, 조금의 여유도 없이 완전 밀착을 통해서 여성의 바디라인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몸에 꼭 붙는 옷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성적으로 지각해 주기를 바라는 신호³²⁾라고 해석되어지기도 하는데, 즉 소재의 밀착성에서 오는 편함과 동시에 신체를 완전히 보호하는 듯 하면서도 오히려 관능적이고 섹시하게 보이고자

하는 현대인의 에로틱한 기호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관능미를 자극하고, 우아하면서 에로틱한 감성의 소유자로 Givenchy collection을 빼놓을 수 없는데, 2000년 s/s 시즌 Givenchy는 검정색 장미(black rose)닝쿨로 몸을 감싼 듯 한 이브닝 드레스를 선보였다. <그림 14>에서 보면, 극히 얇아서 속이 훤히 비치는 스트레치 소재에 장미닝쿨 문양이 있는데, 마치 누드의 모델이 검정색의 장미닝쿨을 둘러 감싼 듯 하여 가리고 드러냄의 미학을 적절히 조화시켜 여성의 관능미를 한층 돋보이게 하고 있다

(2) 도발성(Provocation)

누디즘 스타일 패션의 에로티시즘 양식에서 '도발성'이란 인체의 성의 상징이 되는 부분을 대담한 노출로써 표현하여 에로티시즘을 자극하고 성적 쾌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스타일을 말한다. 이는 대담한 노출을 통해 '보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요소가 되며, 이러한 보이어리즘(Voyeurism) 현상은 노출증과 동시에 자기과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패션에 있어서 도발성은 신체의 여러 부위 중에서도 특히 가슴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 2000년대 패션에서는 특별히 유두(nipple)가 드러나거나 강조되는 스타일이 많이 보이고 있다. 도발성이 나타나는 에로티시즘의 누디즘 스타일은 조형적 특성상 노출(Exposure)을 주로 택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노출과 함께 투시(Transparency)를 이용하기도 하며, 두 요소 모두에서 성적 부위(erozenous zone)를 강조하는 형태로 디자인되고 있다. 이렇게 대담하면서도 아슬아슬한 노출을 즐긴 디자이너로 Sonia Rykiel은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힙허거(hiphugger) 스커트 위에 마이크로 사이즈의 브라톱을 매치시켰는데 모델들이 워킹을 하자 자연스럽게 유두가 드러나 아주 도발적으로 보인다. 이것은 토플리스보다 더 에로틱하게 느껴져서 마치 모델들이 '내 가슴을 주목해 주세요. 언제 유두가 드러날지 몰라요'라고 말하는 듯 하다고 보그의 에디터는 말하기도 하였다. <그림 16>은 Tom Ford의 2003년 GUCCI collection 작품으로 일본풍의 가운을 걸치고

는 있으나 완전한 토폴리스를 선보여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는 “해변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토폴리스로 선택을 즐깁니다. collection에서도 토폴리스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³³⁾라고 하여 현대의 누디즘 패션경향을 여실히 증명하기도 하였다.

(3) 순수성(Innocence)

현대 예술의 특질은 ‘순수성의 지향’에 있다고 하는데, ‘순수성’을 추구하는 현대 복식은 과장을 없애고 직물 평면에서의 장식성을 배제시켜 창조적으로 나타난 자연의 선을 사용하게 된다. 순수성은 누더티(nudity)가 가지는 긍정적 이미지의 하나로,³⁴⁾ 인체의 선을 표현하고 피부와의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누디즘 스타일의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순수한 여성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에로티시즘의 한 양식으로도 볼 수 있다.

순수성을 지닌 에로티시즘 스타일의 누디즘 패션 특성으로는 흰색(white color)과 피부색(nudi color)을 주로 사용하여 단순한 형태의 슬립 드레스, 또는 웨딩드레스 등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동시에 투시(Transparency)의 효과를 이용하여 신체가 비춰 보임으로써 에로틱한 상상을 불러 일으키는 누디즘 스타일 패션이다. 특히, 얇고 가벼운 투명한 스트레치 소재와 하늘거리는 듯 한 얇은 소재는 mesh나 net 처럼 직접적으로 신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투과하여 얇게 비춰 보임으로써 피부가 은은하게 드러나면서 순수성의 이미지를 발산하게 되는데, 에로티시즘 순수성은 투명성 소재의 단순성의 미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7>은 Jean Paul Gaultier의 Gaultier Paris 2003~2004 collection 작품으로 순결과 정숙의 상징인 웨딩드레스를 완전한 See-through로 디자인한 것으로, 웨딩드레스의 순수함과 에로티시즘의 극단적인 조화를 나타내고 있다. 극히 얇고 투명한 소재는 신체의 선을 따라 전체적으로 물 흐르듯 감싸고 있으면서 신체를 그대로 드러내어 주는데, 베일만이 풍성하게 장식되어 있어 신부의 고결하고 정결한 성품 내면에 새로운 삶을 향한 에로틱한 상상을 간직하고 있

음을 나타내는 듯하다. <그림 18>은 이보다는 한층 성숙된 분위기로 nudi color의 slip 드레스인데, 미국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Calvin Klein이 ‘단순한 실용성’을 강조하는 철학을 지니고 있듯이 이 디자인에서도 단순한 라인의 슬립 드레스가 nudi color와 조화되어서 장식이 없이 순수한 분위기의 여성성을 나타내고 있다.

2) 원시주의(Primitivism)

패션에 나타나는 원시주의 스타일의 누디즘 경향은 원시주의의 본질적 관심인 자연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원시부족이나 원시미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출과 액세서리의 사용을 즐기며, 인간 본연의 내면에 충실하도록 하는 감성이 관능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원시주의는 신체의 일부를 과감히 드러내어 에로틱한 이미지를 풍기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스타일과 장식을 볼 때 원시주의 양식의 전형적 특성³⁵⁾ 중 토속성과 같이 야만적이며 신체를 노출시킴으로써 부분을 우선 지각하게 하고 토속적인 장식을 가한다고 하였다. 2000년대 패션에 나타난 누디즘 스타일의 미적 특성 중 원시주의의 경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누디즘 스타일에 나타난 원시주의를 토속성(Primitivism), 자연성(Naturalism), 그리고 관능성(Sensualism)의 세가지 양식으로 구분하여 자세한 그 미적 특성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토속성(Primitive)

보들레르는 “예술가들이 현재를 대면할 때 과거를 사용하곤 한다.”³⁶⁾라고 표현했듯이 많은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이 과거를 재구성하고 검토하여 새로운 예술작품을 표현하였는데 고대 이집트부터 시작하여 역사적 재현 뿐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제3세계의 독특한 민속적이고 토속적 이미지를 빌리기 시작했다. 특히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이러한 경향은 더욱더 짙게 나타나는데, 2001년 Christian Dior의 Haute-couture collection서 나타난 전사적인 이미지는 물론, 2005년 Alexander McQueen의 오리엔탈리즘, Dolce & Gabbana의 아프리카 스타일 등

많은 디자이너들이 토속적인 모티브를 자신들의 패션에 주제로 삼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원시주의 패션에서 토속성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은 토플리스로 대표되는 노출(Exposure)의 형태와 투시(Transparency)를 통한 신체 노출의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원시부족의 실제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 특징이며, 이와 함께 토속적 분위기의 액세서리(끈, 깃털 등)와 타투(Tattoo) 등을 활용하고 있어 원시에의 동경을 자연스런 신체적 지각을 통해 디자인하였다. 2004년 Arkadius는 원시부족 속으로 들어간 듯한 collection을 진행시켰는데, <그림 19>와 <그림 20>에서 토플리스에 단순한 끈 장식을 하거나 부족민들이 전쟁할 때 주로 분장하듯이 불감으로 벗은 상체에 기하학적인 문양을 그려 넣었다. 이러한 특성은 원시주의 스타일의 패션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특성으로 토플리스와 기하학적 형태의 단순한 문양을 반복해서 그리는 것은 토속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어 주고 있으며, 원시생활의 동경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자연성(Naturalistic)

‘자연성’은 자연스런 신체의 지각과 에덴동산으로의 동경 등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연물의 사용이 종종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토속성과 마찬가지로 토플리스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 또한 지극히 얇은 소재를 이용하여 완전한 육체의 지각이 가능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보는 이로 하여금 에로틱한 감흥을 불러일으키기 보다는 오히려 인체 자체의 자연스런 모습으로 다가온다. 즉 신체의 과다한 노출과 성적 부위에 대한 장식의 배제는 보는 이에게 흥분을 감소시키게 되는데 마치 나체주의자(nudist, naturalist)의 세계에서는 누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전체적으로 원시주의 양식의 자연성은 말 그대로 인간의 자연 상태의 모습을 강조하는 조형적 특성으로 노출(Exposure)과 투시(Transparency)를 동시에 사용하면서도 노출 쪽으로 무게가 기울어 가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에로틱한 감흥 보다는 자연 상태의 순수함을 느껴지

게 하는 양식이라 할 수 있겠다. 주로 사용된 색상으로는 natural color와 white color가 사용되었으며, 피부의 노출이 많기 때문에 피부 자체의 색상이 먼저 지각되어지는 특징이 있다. 인류 최초의 자연 상태인 에덴에서의 누디즘을 표현한 디자인으로 <그림 21>을 들 수 있겠는데, 이 작품에서는 하와에게서 느껴지는 에로틱함 보다는 순수한 자연성을 지각하게 되는데, 손에 사과를 들고 나뭇잎을 살짝 비켜 위치해 놓음으로써 유머러스한 감흥을 주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베어 먹고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숨었다고 하는 성경과는 달리 수치심도 두려움도 모른 채 신체의 노출을 즐기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림 22>는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디자인으로 앞에서 살펴본 다른 디자인들과 마찬가지로 토플리스를 취하고 있지만 상체 장식이 거의 없고 또한 에로틱한 감흥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뭔가 부족한 듯하며 하체의 장식도 밋밋한 편이다. 결국 이들 패션에서는 인간의 자연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3) 관능성(Sensualism)

누디즘 스타일 패션에 있어서 ‘관능성’은 본 연구에서 구분한 세 가지 범주 모두에 속하는 미적 특성으로 육체의 노출(Exposure), 즉 누드(nude)라는 자체가 인간의 성적 자극을 위한 요소가 지극히 많기 때문에, 디자인 양식이 원시적이든, 미래적이든, 혹은 순수하게 이성 흡입을 위한 것이든 관능적인 표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히 원시주의 양식에서 관능성은 인체의 장식을 좀 더 원시적 요소가 가미된 디자인을 취하고 있으며, 이때는 주로 노출(Exposure)과 투시(Transparency)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원시주의 양식에서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성적 욕구의 분출과 그것이 기계 문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의 자연적 분위기를 공존시킴으로써 한층 더 에로틱한 관능성을 자아내게 하는데, 주로 사용되어진 조형적 특성은 직접 보여주기 보다는 물고기 그물, 쉬폰 등을 이용한 투시의 효과와 신체 전반에 비정형적인 컷팅을 적절히 활용하여 노출과 관음의 적절한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유희하고 있다. 주로 사용되어지는 색상은 brown을 포함한 gold와 black으로 관능적이면서도 원시적인 이미지를 적절히 나타내어주고 있다. 관능성을 강조하는 디자이너로 Gucci의 Tom Ford를 빼뜨릴 수 없는데, 그는 매 시즌 에로틱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을 하였다. 특별히 2004 s/s 시즌에는 이러한 에로틱한 감각에 원시적 감각을 믹스시켜 여성의 관능성을 절정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번 시즌에서 Tom Ford는 “여성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한다.”라는 스스로의 질문과 해답 아래 자유롭게 컷팅된 수영복과 길게 프린지가 있는 시스루 판초를 험령하게 매치해 노출증과 관음증을 동시에 표현하였다. <그림 23>에서 보듯이 구찌는 여성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관능성과 야만적 본능을 이끌어냄으로써 본연의 아름다움인 나체를 적절하게 잘 드러내는 디자인으로 찬사를 받았다. 원시주의 스타일에서 빠질 수가 없는 소재가 물고기 그물(fish net)인데, <그림 24>에서 Givenchy의 Alexander McQueen은 물고기 그물(fish net)을 이용하여 디자인함으로써 투시(Transparency)의 효과를 적절히 사용하여 원시적인 관능미를 잘 표현하였다.

3) 미래주의(Futurism)

패션에 있어서 미래주의적 형태는 20세기와 함께 시작된 현대 복식의 성립기 이후에 새롭게 탐구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1990년대 이후 2000년대에 표현된 미래주의 패션은 하이테크놀로지, 즉 기술적 발전에 따른 소재의 발달과 인간중심의 사고가 접목되어 인간의 ‘편안함’, ‘쾌적함’, 즉 활동성과 기능성을 살린 디자인이 가장 포인트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래주의(Futurism)를 비밀상적 소재의 사용으로 미래주의적 누디즘을 표현한 하이 테크놀로지(High Technology), 미래적 감각의 관능성을 표현한 사이버 섹시즘(Cyber Sexism), 그리고 기능적 실용성이 접비된 절제된 단순성으로 누디즘을 표현한 기능주의적 미래(Functional Future) 등의 세 가지 양식으로 나누어 미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1) 하이테크놀로지(High Technology)

소재의 미래 이미지는 첨단 기술 개발에 따른 신소재들의 가공처리 과정에서 테크놀로지 이미지를 도입 또는 첨가함으로써 드러난 첨단기술의 미, 즉 테크놀로지의 미가 소재 표면에 드러난 것을 말한다.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을 이용한 미래주의 패션의 누디즘 경향은 금속성, 플라스틱, 비닐, 스트레치 소재 등을 이용하여 투시(Transparency)와 밀착(Body Conscious)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하는 디자인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스타일은 실제 생활에서 활용되어지기 보다는 다분히 쇼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나 실제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을 응용한 신소재의 개발 중 특히 스트레치 소재를 이용한 기능적인 패션이 미래주의 패션에서 주를 이룰 것이며, 이러한 스트레치 소재는 몸에 밀착되고 또한 투시되어 누드적 성향을 절정에 달하게 할 것이라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그림 25>는 J. Maskrey의 2003년 f/w collection 작품으로 의상이라곤 black의 브리프 하나만 입고 상체장식은 유두착색이 고작이다. 여기에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장식된 백팩(backpack)을 메고 있으며, 그로테스크한 메이크업과 헤어를 함으로써 전사와 같은 분위기로 새로운 기술의 조합과 미래주의적인 스타일을 나타내고 있다. Alexander McQueen은 하이테크 소재를 이용하여 미래주의 패션을 디자인하기로 유명한데, <그림 26>은 20세기 말인 1999~2000년 f/w 시즌에 Givenchy의 collection을 위한 McQueen의 작품으로 전체적인 collection의 흐름이 마치 컴퓨터의 내부에 들어온 듯하며 컴퓨터-칩 프린트를 한 다양한 디자인이 소개되었다. 특히 이 작품은 투명한 비닐 소재에 컴퓨터-칩 프린트를 하여 모델의 바디라인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하이테크놀로지를 결합한 누디즘 스타일의 미래주의 패션이라 할 수 있겠다.

(2) 사이버 섹시즘(Cyber Sexism)

누디즘 스타일에서 관능적 특성을 빼 놓을 수 없는데, 미래주의적 패션에서도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강조한 사이버 섹시즘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미래주의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색상으로는 주로 white

color, blue color, metallic color가 있으며, 이러한 색상들은 빛을 반사 혹은 산란시키는 메탈릭한 광택 및 빛을 투과하는 투명한 효과를 지닌 소재와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의 섹시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작용할 수 있다. 누디즘 스타일 패션에 있어서 사이버 섹시즘은 투시(Transparency)와 노출(Exposure)의 적절한 조화와 기하학적 패턴의 반복으로 다이내믹한 울동감을 주고 있다. 특히 소재산업의 발달로 극히 얇아서 마치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듯한 투시성, 스트레치 소재의 사용으로 인체를 따라 흐르는 듯한 실루엣, 피부에 직접 타투를 한 듯한 느낌을 살려 성적 부위를 강조하는 등 성적 본능을 자극하고 있는 미래주의 누디즘 스타일 패션이 주로 나타나고 있었다. 색상은 주로 white color, blue color, metallic color 등이 투명성의 효과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림 27>은 Versace가 대표적으로 지향하는 스타일로 long & slim한 실루엣과 섹시한 이미지를 투명한 소재의 특성을 이용하여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얇고 완전히 투시되어지는 투명한 소재는 기술의 발달로 이루어진 것으로 몸에 밀착되어질 수 있도록 스트레치성 또한 가미되어 있다. 이와 같이, 투명한 스트레치 소재를 이용한 누디즘 스타일은 미래지향적 성향을 다분히 많이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패션들은 금속광택이 주는 미래주의적 이미지가 신체의 과다한 노출을 통하여 섹시한 관능미를 환기시키고 있다. Versace의 디자인 모티브는 'Sex'³⁷⁾로 그의 많은 슬립 드레스들의 특성은 최소(less)한의 재료로 여성의 신체 곡선을 따라 최대(more)로 섹시한 매력을 발산케 하는데 있는데, 특히 Versace는 90년대 동안 스스로 개발한 투명하게 비치는 스트레치 신소재들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그대로 나타내 보이도록 하는 데에 주력해 왔으며, 특히 투명하게 보이는 룩은 옷감들이 극히 얇고 비치기 때문에 누드를 연상케 하고, 이런 특성은 200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그림 28>은 Heatherette의 2005년 s/s collection에서 피날레를 장식한 작품으로 관능적인 흑인 모델 나오미 캠벨이 나체의 신체 위에 금속성의 별(star)만을 두르고 나와 우주공간에서의 섹시한 이

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모델의 몸을 따라 흐르고 있는 '별'은 앞의 사진 Versace의 의상에서도 보이듯이 미래주의적 의상에 주로 나타나는 기하학적 패턴으로 위협과 속도에 공격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이내믹한 것으로 이러한 기하학적 구성은 기계화된 현대를 이해하는 합리적인 조형으로 인식되며, 미래주의를 상징하는 미의 표현으로 의상에 다채롭게 응용되어진다.

(3) 기능주의적 미래(functional Future)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생활이 전반적으로 더욱 단순성, 기능성, 실용성 추구의 경향으로 흐름과 동시에 첨단 신소재의 진보로 인하여 패션은 더욱 더 절제되고 단순해진 최소 라인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래주의 패션에서도 기능적인 라인의 추구가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기능이란 편안함과 자유스러움으로 이것은 미니멀리즘적 특징인 단순함과 순수함의 개념과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미래패션에 대해 패션 디자이너 Bill Tices가 언급한 것을 보면 '기능주의적 미래'에 대해 더욱 잘 설명이 되는데, 그는 "미래에는 기술발달의 진보에 힘입어 옷의 가격이 점점 더 내려갈 것이다. 우리는 솔기선이 필요 없는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의복들은 함께 접착되어서 완성될 것이다."³⁸⁾라고 하였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해체주의적 양식에서도 보인 바, 더욱 단순화되고 축소된 스타일이 자동화설비로 인해 원단과 인건비 감소로 이어지고 이에 더욱 저렴한 의복으로 선보이게 된다는 설명이다. 기능주의적 미래 패션에는 스트레치성이 강한 신소재의 사용과 기능을 최고로 하는 미니멀리즘 사조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신체의 최소 부분만을 가리고, 많은 부분의 피부를 노출(Exposure)을 통해 드러내며, 기능적으로 얇아진 소재로 투시(Transparency)의 효과를 통해 누디즘 스타일의 한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9>와 <그림 30>에서와 같이 기능적이고 단순화된 의복은 재단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되어 옷 형태도 더 작아지고 좁아지는 경향으로 흘러 인체의 직접적인 노출은 점점 많아지게 되고, 마

이코로 섬유 등의 개발로 점점 더 가벼워지고 점점 더 얇아진 소재는 투시의 효과를 가져와서 인체의 선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게 되어 누드의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즉 더욱 단순해진 라인 사이로 신체 강조는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으며 신체노출은 더욱 강조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스트레치 소재에 의한 바디컨셔스 패션에서의 누디즘 스타일은 새로운 비전과 감각으로 투시되어 보이는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기능적이며 동시에 미래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누디즘 스타일의 미적 특성을 <표 3>에서 요약하였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육체의 노출이 점점 증가하고 누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며, 몸담론이 여러 학문적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때에 패션의 영역에서 나타난 누디즘에 관한 연구가 부재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대 패션에 나

<표 3>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누디즘 스타일의 미적 특성

미적 특성	에로타시즘			원시주의			미래주의		
	관능성	도발성	순수성	토속성	자연성	관능성	하이테크놀로지	사이버섹시즘	기능주의적 미래
내용	전체적 분위기를 통한 관능미 표현	대담한 노출을 통한 에로티시즘 강조, 성적 쾌감 환기	투명성 소재를 통한 은유적인 미 표현	토속적 문양, motif 통한 원시미 표현	노출된 육체의 자연미 표현	원시적 분위기의 에로틱한 관능미 표현	하이테크기술 적용하여 미래적 이미지 표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매력 표현	기능을 최선으로 하는 미니멀리즘 표현
표현 기법	투시(transparency) 밀착(body-conscious) black color, nudi color	노출(exposure) 투시(transparency) 시선 집중을 통한 성적 부위를 강조하는 형태	투시(transparency) mesh, net 등 피부가 은은하게 드러나는 특성 white & nudi color	노출(exposure) -topless 액세서리의 사용 -관, 깃털 등 tattoo -원시, 기하학적 문양	노출(exposure) -topless 투시(transparency) 자연물 소재의 장식 natural & white color	투시(transparency) 비정형적인 커팅 쉬폰 및 볼고기 그물의 사용 brown, gold & blackcolor	투시와 밀착의 혼합 금속성, 플라스틱, 비닐, 스트레치 소재 등 비피복 소재 사용	투시와 노출의 조화 기하학적 패턴의 반복 다이나믹한 울동감 white, blue, & metallic color	노출(exposure) -최소 부위만을 기능적으로 가림 신축성 소재 봉제과정의 축소
패션 예시	 <그림 13>	 <그림 15>	 <그림 17>	 <그림 19>	 <그림 21>	 <그림 23>	 <그림 25>	 <그림 27>	 <그림 29>
	 <그림 14>	 <그림 16>	 <그림 18>	 <그림 20>	 <그림 22>	 <그림 24>	 <그림 26>	 <그림 28>	 <그림 30>

타난 누디즘 현상을 분석·고찰하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누디즘의 개념은 몸에 대한 인식변화와 육체해방, 자연주의, 저항문화, 그리고 정신분석학의 네 분야에서 고찰되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정신의 그릇 역할을 하던 육체의 존재성이 점점 더 중요한 위치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와서는 육체중심의 사고가 팽배해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육체의 지위는 승격되었고, 육체의 노출은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 했지만 문명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격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의 결정에 의한 육체의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복식에 있어서 누디즘 스타일은 고대로부터 있어 왔는데, 중세에는 신체의 직접적인 노출은 없었으나 밀착된 의상으로 바디라인을 지각하게 하였고, 르네상스의 데콜타주에 이어 엠파이어 시대에는 신체라인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투명한 슈미즈 스타일이 등장하였으며, 1900년대에는 드디어 여성의 신체에서 발목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20년대의 플라퍼들의 노출 패션을 비롯하여, 50년대 비키니 등장, 60년에 이르러서는 누디즘이 확대 공인되었다. 튜리스 수영복에서부터 no-bra, nudity look의 성행과 히피들의 누디즘 패션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70년대의 Punk와 80년대의 건강미 추구로 인한 신체노출 증가, 그리고 90년대에 이르러 자연주의와 60년대를 향한 복고무드가 신체를 과감히 드러내게 하였으며 새로운 신소재의 개발로 누디즘 경향을 더욱 가속화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에 나타난 누디즘 스타일 패션의 조형적 특성으로 노출(Exposure), 투시(Transparency), 밀착(Body Conscious)의 세 가지 특성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시대별로 이 세 가지 특성의 누디즘 스타일 패션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성적인 개방과 매체의 범람, 성에 대한 현대인의 사고방식의 관대와 물질만능주의에 억눌린 인간성 회복을 위한 자연성의 추구로 원시적인 상태인 나체를 동경하게 되었고, 건강 지상주의와 외모 지상주의의 이념이 잘 가

꾸어진 육체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 및 타인에게 과시를 위해 누디즘 패션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육체에 대한 완전한 소유가 개인에게 정착되어짐에 따라 옷을 벗고 입체에 있어서의 자유를 획득한 결과 현대 패션에서 누디즘이 스스럼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누디즘 스타일의 미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에로티시즘(Eroticism), 원시주의(Primitivism), 미래주의(Futurism)의 세 가지 미적 특성으로 도출되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누디즘 패션은 문명화된 사회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자연에 회귀하고자 문명의 산물인 옷을 벗음으로써 자연성을 찾고, 인간 내면의 목소리 즉 성적 본능에 충실하고자 관능적인 표현으로 누디즘 패션을 선택하며, 이것은 또한 과거로의 안주가 아니라 신소재 개발, 기능성 추구 등을 통해 미래패션에서도 많이 나타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과거의 패션에서도 있어왔지만 2000년대에 들어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패션 경향의 하나로서 노출현상을 누디즘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접근한 논문으로, 누디즘 스타일 패션의 개념 및 미적 특성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수립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체에 대한 정신적·사회 문화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노출패션의 근원적 배경을 밝혔으며, 누디즘 패션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자료를 남김과 동시에, 노출패션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여, 연구 주제의 다양화에 따른 학문적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되어진 미적 특성을 바탕으로 미래 패션 디자인에서 누디즘 스타일 패션의 디자인에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참고문헌

- 1) 김민자 (2004). 복식이 옛보기-복식미학강의 2. 서울: 교문사, p. 80.
- 2) Michael Cartor (2003). J.C. Flügel and Nude Future. *Fashion Theory*, 7(1)
- 3) 김경화·김경애 (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상반신 노출의상에 관한 연구-배꼽티와 오프숄더를 중심으로-.

-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9(4).
- 김지연·이경희 (2001). 현대패션에 나타난 인체노출의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5).
- 조은영·홍병숙 (1995). 여성의 신체노출의상에 대한 인지적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9(5).
- 4) 임성민·박민여 (2004). 패션의 노출과 은폐에 관한 고찰-Freud의 정신분석학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11).
- 5) 조경희 (2001). Body-Conscious Look에 나타난 미적특성과찰.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 한국브리태니커온라인, 자료검색일 2004. 8.20, 자료출처 <http://preview.britannica.co.kr>
- 7) Ruth Barcan (2004). *Nudity: A Cultural Anatomy*, Berg, p. 167.
- 8) *Ibid.*, p. 169.
- 9) 오생근 (1997). 데카르트, 들뢰즈, 푸코의 '육체'. 사회비평, 17호, p. 98.
- 10) Featherstone, M. (1991). The Body in Consumer Culture, in Mike Featherstone, Mike Hepworth, Bryan S. Turner(eds). *The Body : Social Process and Cultural Theory*. London: Sage Publications, pp. 170~176; 김성호 역 (1993). 소비문화 속의 육체. 문화과학, 제4호, pp. 35~63.
- 11) Foucault, M. (1975). 오생근(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2003.
- 12) Baudrillard, J. (1970). 이상률 옮김(2002).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pp. 189~194.
- 13) Rudofsky, B. (1974). *The Unfashionable Human Body*. New York: Anchor Books, pp. 93~94; 최현숙 (2000).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페미니즘·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1 재인용.
- 14) Kaufmann, J. C. 저, 김정은 역 (1996). 토플리스 사회화-여자의 육체 남자의 시선. 한국경제신문사, p. 114.
- 15) Peter N. Skrine & Lilian R. Furst (1986). 천승걸 역. 자연주의(Naturalism). 서울대학교출판부, p. 1.
- 16) Jane & Michael Stern (1990). *Sixties People*. New York: Alfred A. Knof, p. 165.
- 17) Humm, M. 저 (1995). 심정순, 염경숙 역. 페미니즘이론 사전. 삼신각, p. 316.
- 18) 정현숙 (1997).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 연구. 복식, 제35호, p. 234.
- 19) Steele, V. (1985). *Fashion & Erotic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25.
- 20) 권수현, 이정희, 이준원, 이재경 (1996). '외모 가꾸기'에 대한 여성학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연구논집, 제30권
- 21) Freud, S. (1905). *Jokes and Their Realation to the unconscious VIII*, p. 88 cited by Steele, V. (1985). *Fashion and Erotic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27.
- 22) Lighter, J. E.(ed)(1994). *Historical dictionary of american slang. vol.1*. New York: Random House, pp. 766~777.
- 23) Laubner, E. (1996). *Fashions of the Roaring 20's*. Schiffer Book, p.18
- 24) 박태용·임영자 (2004). 200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미니스커트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4(6), p. 34.
- 25) 이소영 (1998). The Pursuit of Individual Freedom in Rudi Gernreich's Fashion Designs. 복식, 제38호, p. 128.
- 26) Laura Bamford (1998). *Decades of Beauty- The Cahnging Image of Women 1890s 1990s*, New York : Kate Mulvey & Melissa Richards, p. 155.
- 27) 조경희 (2003). 스트레치 소재에 의한 현대패션의 미. 서울: 경춘사, pp. 163~166.
- 28) 위의 책, pp. 52~54.
- ex) body-conscious look, body-conscious fashion, body-conscious line, body-working look, body clothing, body dressing, body skimming fashion, body-conscious clothing, body-conscious stretch garment, body-conscious clothes, body's contours, freedom clothing, body-hugging garments, second-skin clothing, skin-tight stretch wear, body-skimming dress, body-conscious silhouette, etc.
- 29) Adler, F.M. (1980). *Sports Fashion*. New Work: Avon Books, p. 135.
- 30) 조경희. 앞의 책, p. 164.
- 31) 박명희·정연자 (2000).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 이미지. 복식, 40(2), p. 121.
- 32) Libby G. Nass and R. Fisher (1984). *Sexual Choices, California: Wadworth Health Science*. Monterey, p. 15.
- 33) *VOGUE Korea*, 2003. 2월호 p. 152.
- 34) Barcan, R. (2004). *Nudity-A Cultural Anatomy*. New York: Berg, p. 88.
- 35) 하지수·김민자 (1993). 현대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 양식 -원시주의 미술의 조형성과 비교를 중심으로. 복식, 21, p. 203.
- 36) Martin, R. & Koda, H. (1989). *The Historical Mode*. New York: Rizzoli, p. 7.
- 37) Richard Martin (1997). *Versace*. New York: Universe Publishing, p. 15.
- 38) Khornak, C. (1982). *Fashion 2001*. New York: A Studio Book: The Viking Press, p. 8.
- <그림의 출처>
- <그림 1> François Boucher (1997).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Thames & Hudson, p. 81.
- <그림 2> *Ibid.*, p. 236.
- <그림 3> Gerda Buxbaum (1999). *Icons of Fashion*. Prestel, p. 92.
- <그림 4> Peter Feierabend (2000). *La Mode. Könemann*, p. 458.
- <그림 5> François Boucher. *op. cit.*, p. 96.
- <그림 6> Richard Martin (1996). *Infra-Apparel*. 한길사,

- p. 15.
- <그림 7> Gerda Buxbaum (1999). *Icons of Fashion*.
Prestel, p. 105.
- <그림 8> *Ibid.*, p. 154.
- <그림 9> François Boucher. *op. cit.*, p. 92.
- <그림 10> *Ibid.*, p. 206.
- <그림 11> Gerda Buxbaum. *op. cit.*, p. 85.
- <그림 12> Golbin, Pamela (1999). *Createurs de Modes*,
Edition Du Chene-Hachette Livre, p. 134.
- <그림 13> *Mode et Mode* (2003). No.324 p. 65.
- <그림 14> *Fashion News* (2000). vol.60 p. 31.
- <그림 15> *Vogue Korea* (2003). Feb., p. 152.
- <그림 16> *Ibid.*, p.152.
- <그림 17> *Mode et Mode* (2003). No.324, p. 65.
- <그림 18> www.firstview.com
- <그림 19> *Vogue Korea* (2003). Dec.
- <그림 20> www.firstview.com
- <그림 21> *High Fashion* (2004). No.295, p. 122.
- <그림 22> *Fashion News* (2004). vol.68, p. 61.
- <그림 23> *Vogue Korea* (2003). Dec.
- <그림 24> *Fashion News* (2001). vol.72, p. 10.
- <그림 25> *Vogue Korea* (2003). May.
- <그림 26> Gerda Buxbaum. *op. cit.*, p. 173.
- <그림 27> *Fashion News* (2002). vol.76, p. 65.
- <그림 28> www.firstview.com
- <그림 29> *Ibid.*
- <그림 30> *Ibid.*